

책으로 세운 청춘의 기념비

내 영혼의 울타리가 돼줬던 책들

김명리 | 시인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내내 무거웠다. 빗 보증을 잘못 서신 아버지는 그에 화병으로 쓰러지셨고, 장롱이며 문갑이며 책상과 책장에까지 붉은 압류딱지들이 붙어 있는 나날이었다. 대입 예비고사를 1년여 남겨놓은 입시생이었지만 나는 늦도록 교실에 남아 《수학정석》이나 《성문종합영어》 대신, 《말테의 수기》 《인간의 굴레》 《마의 산》 《황야의 이리》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어쩔 수 없이 좌절된 꿈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동경보다도 문학과 책의 세계는 내 영혼의 비상을 위해 마련된 마지막 극약처방처럼 혈관 속으로 뜨겁고도 세차게 빨려들어 왔던 것이다. 그 당시 미션 계통의 우리 학교 교목실에는 전교생이 책을 한권씩 내서 마련한 문학서적도서관이 있었는데, 대출을 담당했던 전도사 선생님께서 “이젠 내게 빌려줄 책이 없구나” 하실 정도로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어나갔다. 그래서였던가, 현실적으로는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막한 생활과 아버지의 와병으로 인한 집안의 침울한 공기는 책 속의 작중인물이 타개해나가야 할 열악한 환경 정도로 순화되며, 견딜 만한 관념 속의 채도(彩度)로 서서히 표백됐던 것이다.

그러나 스무해도 더 지난 지금까지 문득문득 가슴을 예각의 통증으로 후비는, 내 존재 전부를 차압해버릴 것만 같았던 그 에나멜 책상의 붉은 압류딱지 위로 ‘정가 500원, 1972년 대하출판사 간, 헤르만 헤세 지음’이라 적힌 붉은 표지의 《데미안》을 올려놓고 그야말로 눈에서 불이 철철 쏟아질 것 같은 격렬함으로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왔을 때, 신새벽의 겨울하늘에서 새하얀 봉대

처럼 풀려 내려오던 눈송이의 기억은 지금 돌이켜봐도 가슴저린 환희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랬다. 나는 《데미안》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밀랍의 컷속처럼 파고 들어가 내 운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향해 달려올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 오랜 기다림의 가슴 한쪽에는 또 하나의 붉고 싱싱한 햇바닥이 매달려 있어 언제까지나 그때 그 《데미안》의 구절들을 읊조리고 다녔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 당시 우리집은 서울 변두리의 버스 종점 가까이에 있었는데, 종점에서 종점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내가 종종 이용하는 이동독서실이 됐다. 일요일이나 방학 때면 책 읽

고 학교에 가기도 좀 뭇하고 집에 있자니 집중이 안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책 한두권 들고 버스에 올라타는 일이 습관처럼 굳어졌다. 버스의 제일 뒷좌석 귀퉁이에 딱하니 자리잡고 앉으면 노인들이나 애 업은 아줌마에게 자리양보할 일도 없다. 좀 심하게 덜컹거려서 그렇지 나로서는 책읽기에 그런 안정맞춤이 없었다. 종점에서 종점까지 흔들리는 차안에서 빨간 볼펜으로 밑줄까지 쳐가며 왕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북 3시간 거리를 한두번쯤 오가면 들고 간 책한권은 대체로 소화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처음 몇번은 당시 차장으로 불렸던 버스 안내양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심하게 퇴박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눈인사까지 건네는 참으로 고마운 안내양이나 기사아저씨들도 있었던 듯하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의 어린 오기가 좀 껌스럽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 '이동독서실'에서 읽었던 책들은 더 또렷이 기억의 깊은 안쪽에 각인돼 있다.

그때 읽은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카프카의 책장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모두 빌려온 것이므로 남에게 빌려줄 수 없음'. 자신이 소유한 책의 '권리장전'을 한줄로 축약한 것치고는 무정하지만 기발한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빌려주기 싫으니 좋으니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조차 없었겠으니 말이다. 요즘도 책은 빌려줘도 빌려온 책은 되돌려 줘서도 안된다는, 우스꽝스러운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앞뒤의 이야기 모두가 그만큼 자신의 책에 대한 은밀하고도 깊은 사랑의 발로로 짐작된다. 도서관이나 친구에게서 빌려보는 책은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내 것만큼 속 깊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고, 그 책을 돌려줄 때 때로 연인을 떠나보내버리는 것 같은 절절한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종종 있는 법이니 말이다. 나도 몇 해 전엔가 한 친구에게 르 클레지오의 《홍수》를 빌려 읽다가 너무도 그 책에 빠진 나머지 마치 내 소유인 양 퍽 하니 다른 친구에게 양도해버린 적이 있는데, 결국엔 두권의 《홍수》를 새로 구입해서 처음에 빌린 친구에게 한 권, 내가 또 한권 가진 적이 있었다. 몸에 걸치는 것도 아니고 꼬르륵거리는 뱃속을 채우는 것도 아니지만 한번 일별해서는 아쉽고 그리운 책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으니, 그렇기에 어려운 시절일수록 그만큼 책에 대한 소유의 집착 또한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풍돈이 제법 쥐어졌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책방으로 직행했던 그 무렵, 헌책방은 내가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드나드는 또 하나의 성소였다. 운이 좋으면 너무도 싼값에 내 청춘의 기념비가 될 만한 '전리품'(나는 그 무렵 지상의 모든 책들은 생을 담보로 한 세계로부터의 전리품이라고 이름 붙여 주었다)들을 가슴 벅차하며 내 소유로 등재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 당시 버스 종점에서 우리집에 이르는 오르막에는 좌우로 헌책방이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그 둘 가운데 더 선명하게 기억되는 곳이 오른편 골목쟁이에 붙어 있던 '할아버지 책방'이다. 바로 그곳에서 참으로 고소를 금지 못할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여름이었지 싶다. 버스에서 내리면 으레 책방 언저리를 기웃거리거나, 쌓아놓은 책들 중에서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저걸 사야지' 눈으로 광광 점 찍어두거나, 꺾고 또 꺾고 끝도 없이 실랑이를 벌이거나, 그러다가도 때로는 더 좋은 책을 덤으로 얹어주시는 할아버지의 인자함(?)이 너무도 고마워서 쭈글쭈글한 손등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었던 그 시절 그 뜨거웠던 바로 어느 날,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내가 너무도 아껴서 신주단지처럼 모셔놓았던 책들이 한권도 아니고 두권도 아니고 무려 여덟권씩이나 책방의 진열대 위에 '떠억' 하니 엮어져 있는 게 아닌가. 너무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묻지

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고불고 해봤지만, 그 소중한 내 책들을 그냥 되돌려줄 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다. 그 중에는 바로 그 책방, 그 할아버지에게서 샀던 책이 무려 다섯권이나 끼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다만 낯선 청년이 가지고 왔길래 제 값 주고 샀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수업시간에 몰래 읽다가 벌까지 서가며 나와 함께 했던 그 책들, 매운 코피 쏟아가며 밤새워 읽고 또 읽었던 그 책들, 무수히 밀줄 그어진, 그 여백에 쏟아놓았던 숨가쁜 고백들! 간신히 마음을 수습하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된다고 몇 번씩 다짐받고, 그 청년한테 쫓던 그 가격으로 내가 며칠 내로 되사가겠다고 확인에 또 확인을 거듭한 끝에 나는 미친 듯한 걸음으로 집으로 내려 달려 올라갔더랬다. 결국, 꺾간한 게 공부는 안하고 책만 읽는다는 미명하에 오빠가 제 당구비하려고 금쪽 같은 내 책들을 휴지값에 내다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날 밤의 일이고, 나는 그날부터 오랫동안 '오빠'라는 두 음절을 발성할 때마다 비아냥 섞인 한숨이 앞질러 터져나오려 하는 것을 간신히 눌러야만 했다. 물론 그 책들은, 팔린 가격의 열 배 이상을 쳐주고 한권도 남김없이 도로 되찾아 왔지만 그 할아버지의 헌책방은 그 뒤로 두번 다시 기웃거리지 않게 됐으니, 그때 되찾은 마르탱 뒤 가르의 《희색 노트》의 맨 앞장 간지에는 분명 모나미 볼펜이었을 싶은 필기구로 무척이나 정성 들여 눌러 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색이 바래지 않은 채 또렷이 남아 있다.

"인간의 일은 몇대로의 운명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전히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일이었다. 그 이외의 모든 일은 어중간한 일, 도피의 시도, 대중의 이상 속으로의 퇴보, 적응, 그리고 자기자신의 내면에 대한 공포였다. 끔찍하고도 성스럽게 새로운 형상이 내 앞에 떠올랐다." <1976년 7월 12일 명리>●